

## 지역순환형 생태농업을 향해 가는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연합회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5월14일 토요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푸른들 영농조합, 한살림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한살림 아산 매장을 개장 하는 날이다. 오전10시쯤 풍물을 앞세워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문을 읽고, 유기농 가게가 변성 하도록 돼지머리에 지폐를 꽃아 문전성시를 기원 하였다. 매장에는 이 고장에서 생산된 오이, 토마토, 깻잎, 두부, 잡곡 등 원산지가 아산인 것이 많아 이곳이 유기농 생산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유기농 생산지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에 들러 생산지 현장을 보여 달라고 재촉 했다. 매장 개장 행사는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음식

도 나누어 먹는 등 분주했다. 웬지 계속 재촉하기에는 미안했다. 시간은 오후1시가 넘어 가고 있을 때 실무자가 가자고 말했다. 아산시 온양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과 매장을 뒤로하고 이제 생산지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아산시를 벗어나자마자 국가하천 곡교천의 은행나무와 시원한 하천을 보면서 이곳 수질의 깨끗함에 대해 물어 보았다. 예전에는 4급수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2내지 3급수라고 한다. 곡교천은 천안의 명산 광덕산을 발원지로 흘러내려 이곳 아산을 거쳐 삼교천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음봉면 봉계리에 있는 밀밭이다. 무려 20만평에 밭에는 봄밀을 생산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콩을 생산하고 있다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 중 밀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콩은 푸른들영농조합에서 만든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에서 매입하여 우리 콩 부두를 만들어 전량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두유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아산시 음봉면 신희리 왕우렁를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지를 방문 하였다. 이곳은 신희저수지 아래로 금방 보아도 쌀 생산지임을 알 수 있었고, 시원한 바람과 햇빛으로 예전부터 농약을 덜 사용 하였다는데 한살림과 결합 하면서 유기농 쌀 생산 단지로 전환 되었다 한다.





는 옆에 비닐하우스에서 유기농 깻잎 수확이 한창 이었다. 농민들은 깻잎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공장처럼 일정하게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맞게 생산하여 포장하다 보니 생산 시기를 지나 웃자라는 것은 조금 클 수밖에 없는데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의 소비자가 조금만 이해 해주면 되는데, 아쉬움만 뒤로 한 채 세 번째 방문지인 푸른들 식품 가공공장으로 향했다.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은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있다.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은 푸른들영농조합이 만들었고, 푸른들영농조합은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에서 만들었다. 이처럼 아산의 환경 농업은 다른 곳에 비하여 독특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는 지금부터 30년 전 1975년부터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 시도를 하였는데 생산은 1980년부터 시작되어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하다가 1987년부터 한살림에 공급을 시작 하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만들어 1996년에 생산농민 60여명으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를 정식 출범시켜 현재는 전체회원이 약400명으로 확대 되었으며, 생산물로서는 80여만평에서 쌀을 생산하고, 50만평에서 밀과 채소, 과일을 생산하고, 이밖에도 유정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써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는 이제까지 농민들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것을 각자 책임져야 했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가 중앙 한살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생산계획, 생산계약, 생산과 출하시기 조정, 생산기술 교육, 작목의 선택, 친환경 인증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생산자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생산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자가 증가되어 이

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이 푸른들영농조합이고 2000년 10여명의 조합원이 1000만원씩 출자해서 만든 것이 현재 400여명의 조합원에 출자한 총액만도 6억원 규모이며,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2004년도에 100억원, 올해에 150억원을 예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에는 독특한 철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대량생산을 하여 낮은 가격에 파는데 비하여 푸른들 식품가공공장의 두부 생산의 경우 하루 1만모를 생산할 능력은 있으나, 소비자의 주문량만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도 일반 두부보다 2배의 가격을 받고 있다. 공장의 운영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이렇게 해야 신선한 부두를 오래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푸른들 영농조합물류센터에서는 미곡을 소포장하는 자동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파를 비롯한 채소도 이곳에서 소포장을 하여 한살림 중앙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방문지로 신봉리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를 방문 하였다. 비닐하우스의 주인은 아산시 한살림 매장 개장식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익어가는 토마토와 건강한 토마토 나무줄기를 보면서 먹음직스런 토마토 하나를 한 입 깨물어 넣고, 달고 상큼한 맛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 나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네 번째 방문지를 보고 다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2시간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아산시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지 새삼 느꼈다. 우리는 흔히 아산 하면 현충사, 온양온천을 쉽게 떠올리며, 지나는 길에서 천안에 붙은 작은 도시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방문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충남 홍성에 주형로 대표가 있었다면 이곳 아산에는 이호열 대표가 있다. 두 분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성장과정, 학력, 리더십, 추진력, 환경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사회의 변화가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처럼 개인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경우도 있

다. 아산. 홍성이 바로 그런 경우라 생각한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호열 대표를 만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렸다.



첫 번째 최근 아산시는 농림부 산업클러스터에서 3년간 60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지역순환형농업을 다지는데 사용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①유기축산에 관한 사업(유기축산농가와 경종농업농가 부산물 교류에 따른 연구 및 실용화) 연암대학교와 협력 ②농민교육지원사업 ③지역 검사 시스템(생산물, 토양 등) ④지역특성화 연구사업(작목, 브랜드 등)⑤도농 교류센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아산시가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개발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 자체를 일반농업지역과 친환경농업단지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등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점차 확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자체의 확대와 공장 등의 무분별한 확대는 친환경 농업에 결



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일해 왔다고 봅니다.

세 번째 현재 푸른들식품가공공장, 푸른들영농조합물류센터, 사무실 등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나, 물류, 의사소통, 인원의 효율적 사용 등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하나하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 순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떠합니까?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일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아산하면 지역순환형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순환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 축산,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료공장, 유기농 축산분의 퇴비화 공장, 농업생산 및 가공공장의 폐기물 처리 등이 순환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유기축산을 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과 두부 가공공장의 비지 등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를 연암대학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영양분석 등 진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전용 RPC(미곡처리장)를 만들어 친환경 미곡에서 나온 쌀겨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는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친환경 농업에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하여 잉여 농산물을 만들고, 그것이 소비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소비에 맞게 계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대기 하는데 이 문제가 직거래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 아산시, 농민 등이 잘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은 생태적 지역농업 될 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국산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수입된 에너지(유류 등)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자체 에너지원으로 순환 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안에너지는 농민들이 자본이 없어 어렵습니다. 물의 재활용 순환시스템, 태양광, 태양력, 풍력 등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역의 물질순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순환한다는 점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는 이호열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농업이 가야 하는 방향이다. 화학영농으로 대표되는 시절 농업이 농업폐기물과 화학비료, 화학농약 등 많은 부분의 환경을 훼손시켰고 대표적으로 하천의 수질은 인, 질소의 과다에 따른 하천의 부영양화 등 많은 환경피해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농업이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나

그 피해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이 강조되고, 웰빙의 사회적 흐름에서 확대되어 유기농 농가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산물 유기농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투입되는 물질순환 연결 고리를 지역 사회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의 친환경 농산물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아산의 자원 순환형 모델은 우리의 농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간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동네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집단으로 하는데 비하여 여기 아산시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지역 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가와 관행 농가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가 벌어지는데 아산이나 홍성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극복하고 친환경 단지화 되어 간다는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요즈음 녹색농촌 마을을 방문하다보면 군데군데 인삼밭이 있고, 그 옆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여러 곳을 볼 수 있으나, 차마 그곳의 명칭을 밝히는 건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삼밭 주변에서는 유기농 인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단지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곳에서 친환경 생산 집단 단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며,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41

전화 041-542-1720

FAX 041-541-1725

이호열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141

전화 041-542-1720

핸드폰 017-421-1601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장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